

이철우 경북도지사 77.95% 압승, 임종식 道교육감 49.77% 재선 성공

6.1지선 영천시장, 무소속 최기문 53.43% 재선 성공

전국, 與 정권교체 완성... 野 참패
 국민의힘 영천시의원 비례 2석 모두 차지
 더불어민주당 영천, 시의회 진출 완패
 하기태 후보 최고 득표수(4,634표)
 김선태 후보 최고득표율(37.82%)
 청도군수, 국민의힘 김하수 후보 56.12% 당선
 청도군도의원, 국민의힘 이선희 후보 59.6% 당선



경북도지사 이철우 당선자



경북도교육감 임종식 당선자



영천시시장 최기문 당선자

6월1일 치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77.95%를 득표해 압승하고, 임종식 道교육감 후보는 49.77%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시장 후보가 26,881표(53.43%)를 얻어 22,034표(43.80%)를 득표한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를 9.63%p차로 따돌리고 영천시장 첫 무소속 재선에 성공하면서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 정치 정서상 영천에서 연이어 무소속으로 영천시시장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후보는 개표 초반 표차 15%대 우세를 유지하면서 본투표 막판에서 10%대 이하 표차를 보였지만 개표 내내 우세를 지켜 절반이 넘는 53.43%를 얻어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를 9.63%p차로 따돌리고 가볍게 수성했다. 영천시 사상 첫 무소속 재선 성공 사례다.

하지만 영천시의회는 12명 중 무소속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구성돼 그동안 국민의힘과 각을 세웠던 무소속 최 후보로서는 시정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시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최 후보로서는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당선 후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전국, 與 정권교체 완성... 野 참패

한편, 전국적으로 與 정권교체 완성과 野 독선견제 균형으로 혈투를 벌였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지자체장 선거 17곳 중 불과 4곳에서만 당선되는데 그쳐 13석을 차지한 與에 野가 참패했다. 이번 여당의 대승으로 지방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

부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7개 광역 시·도 중 민주당이 14개 시도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 반대로 與 승, 野 참패로 막을 내렸다. 전국 226곳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40곳, 민주당이 66곳, 진보당 1곳, 무소속 19명으로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제7회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180도 뒤집힌 것이다.

◆영천, 시·도의원 국민의힘 압승(12명 중 10명)

◆무소속 최기문 후보, 영천시 사상 첫 무소속 재선 성공

영천지역 시·도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압승으로 종결됐다. 비례 두 석을 모두 가져갔고, 도의원도 제2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강한 저항세를 눌렀다.

▲[도의원선거]

또 영천 지역은 무소속 최기문 후보가 영천시시장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에서는 일찌감치 이준우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제2선거구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영수 후보가 농민후보로 맹활약 했지만 9,647표(36.70%)를 얻는데 그쳐 16,632표(63.29%)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승오 후보에게 약 두 배가량의 표차로 저 첫 정치입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시의원 가-선거구]

이번 선거의 특징은 영천시시장에는 실패했

지만 지역 시·도의원은 국민의힘이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시의원 2명을 선출하는 가-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김선태 후보가 4,081표(37.82%)를 얻어 해당 선거구 1위로 당선됐다. 2위는 국민의힘 우애자 후보가 3,954표(36.64%)를 얻어 지난 의회 비례에서 이번에 지역구에서 대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최순례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비례로 의회에 입성해 이번에 지역구로 변경해 선전했으나 2,754표(25.52%)를 얻는데 그쳐 석패했다.

▲[시의원 나-선거구]

또 3명을 선출하는 나-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1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져 이 중 국민의힘 김상호·김종욱 2명이 성공하고, 금호지역 이영우 후보는 막판 몰표를 얻어 국민의힘 서만울 후보를 99표차로 따돌리고 14.53%를 득표해 가까스로 도전 3수만에 의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김상호 후보는 4,213표(33.31%)로 나-선거구 1위로 당선했고, 같은 당 김종욱 후보는 2,226표(17.60%)를 득표해 2위로 당선됐다.

▲[시의원 다-선거구]

가장 치열한 격전지 다-선거구는 3명을 뽑는다. 4선 무소속 전종천 후보가 2,697표(15.77%)를 얻는데 그쳐 5선 도전에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조창호 후보 역시 2,644표(15.46%)를 얻어 5위로 재선에 패했다. 영천시 행정자치국장 출신인 하기태 국민의힘 후보는

첫 신인 정치 입문에 4,634표(27.10%)를 획득해 영천시의원 최고 득표수로 초선 의원 등극에 성공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영기 국민의힘 후보도 3,841표(22.46%)로 무난하게 당선됐다. 이로써 3명을 선출하는 다-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은 2명의 후보만 출전시켜 2명 모두 성공시켰다.

다-선거구 특징은 김용문 후보다. 무소속으로 지난 제7회때 첫 출마해 인사 잘하는 젊은 청년으로 1,978표(9.56%)를 얻었다. 당시 9명의 후보자들이 출전한 가운데 4선 전종천 의원에 706표차로 낙선했다. 하지만 이번에 5선에 도전하는 전종천 의원을 제치고 당당하게 419표차로 영천시의회에 진입했다. 출마자 중 가장 연령이 낮은 당선자다.

▲[시의원 라-선거구]

마지막으로 2명을 선출하는 라-선거구는 사실상 모두 국민의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이갑균 후보와 신인 권기한 후보와 당 공천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서정구 후보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3명이 경합했지만 무소속 서 후보는 탈락하고 국민의힘 두 후보는 모두 당선됐다. 이갑균 후보 3,205표(37.40%), 권기한 후보 2,936표(33.93%)

- ◆영천시의원 비례대표 2석 모두 국민의힘 차지
- ◆국민의힘 배수에 박주학 당선 확정

<2면에 계속>

장지수 기자

瓶窩 李衡祥의 문학과 예술

신록이 눈부신 초여름에 고당의 만안을 기원합니다.
 병와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瓶窩 李衡祥의 文學 和 藝術>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 <瓶窩 李衡祥의 學問과 思想>을 주제로 한 제1회 학술대회의 성과에 힘입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더욱 다양한 시각의 심도 있는 논문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물로 지정된 10종 15책 외 방대한 병와 유고는 물론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유품 또한 소중한 연구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瓶窩學 정립은 중요한 학문과 과제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공사에 다망하시겠지만 왕림하셔서 고견을 더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22년 5월
 병와연구소장 박규홍·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장 정우택 拜上

▶ 병와 이형상의 문학과 예술 학술대회

▷일시 : 2022년 6월 4일(토) 오전 10:30~오후 5시

▷장소 : 영천시 평생학습관 우석홀

▷주최 : 영천문화유산연구회

▷주관 : 병와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천시 최부선로 243 ☎(054)339-7755~6

박영환·최기문 TV토론 시민들 “한마디로 수준 이하”, “부끄럽다”

최기문, "당선되면 국민의힘 입당?" 국민의힘, "누구 마음대로, 꿈도 꾸지 마!"

최기문 영천시시장(후보)이 "재선에 성공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천시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원팀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선 후 여론을 들어 (국민의힘 입당)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 핵심 관계자는 "표가 다급하니 그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

러냈다. 절대 입당 불가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앞서 지난달 22일 영천공설시장 박 후보 지원 유세에서 "입당은 당대표가 결정한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지역 당협과 같은 절대 불가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기문 후보는 "(국민의힘)당의 입당은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면서 "이만희 의원이 지난 대선 전에 (입당)협조요청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는 발언을 했다.

반면 지난달 19일 이만희 의원은 당사무실에서 가진 당 소속 후보 출



지난달 24일 MBC 대구방송 영천시시장 후보 토론회 (박영환(왼쪽) 후보와 최기문 후보)

정식에서 "지난 4년간 우리는 속아 왔습니다. 영천시민을 속인 무소속, 4년 동안 시정보다 부부가 함께 자신의 선거운동만 해 왔지 않습니까? (최 시장이)스스로 국민의힘에 들어 오겠다(입당)고 말해 놓고 제가 다음 재선을 위해 돕겠다고 했는데도 제 (이만희)가 못들어오게 했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며 오히려 최 후보와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발언을 놓고 일각의 시민들은 "진짜 혼란스럽다. 또 니편 내편 갈라치기 하나,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선거와 관련 없이 이번에는 누구 말이 거짓인지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이번 방송 토론회 결과를 두고 시민들의 여론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는 반응이다.

박영환·최기문 두 후보 모두 토론의 절차와 규정조차 지키지 못했다. 최 후보는 자신의 질문 시간에 답변 같은 설명으로 끝내고 기다리자 사회자가 "질문하십니까?"라고 되묻고, 박 후보에게는 답변하라고 하자 최 후보는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한 것 같으며 엉뚱하게 보충질문을 하려 하자 사회자가 또 "

지금도 답변 시간이다"며 제한하는 등 두 후보 모두 토론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후보 간 질문과 답변에서도 샷대질, 개인적 흥분, 동문서답, 질문에 대한 이해력 부족, 개인적 감정이 드러나면서 신경질적으로 토론이 이어지자 시청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번 두 후보 토론회를 두고 일각의 시민들은 "한마디로 코미디를 봤다. 이렇게 수준 이하일 줄 미처 몰랐다"며 두 후보를 싸잡았다. 언론 일각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후 지방 코미디를 본 것 같다. 이러다가 개그맨 밥 줄 끊어지겠다"면서 "영천 시민인 내가 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동영천 IC 인근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2024년 준공 목표 박영환 전 도의원 실적 최기문 영천시시장(후보) 선거 공약으로



유료주차장화된 전복 정읍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경북 영천시 동영천IC인근 2만9천 700㎡에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을 갖춘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해 동영천 IC 부근에 2만9천700㎡ 부지를 확보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박영환 후보는 지난해 12월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족한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인해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고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박영환 도의원은 경상북도에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경주시 전북면에 1개소 178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4개소 1,227면의 화물차 공영주차장만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10월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대상 사업용 화물차 약 21,000여대의 6.7% 수준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화물차공영차고지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년 간 경북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건수가 6,434건에 이르는 등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갓길이나 주택가의 화물차 불법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나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된다.며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를 천명해왔다.

그런데 이를 지난 26일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을 5일 앞두고 최기문 영천시시장 후보는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형 공영주차장은 단순 주차기능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인 샤워장, 휴게소, 헬스장 등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형화물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그동안 화물차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심 외곽 도로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등에 밤샘 주차 및 불법 주차와 교통사고 위험 등 지역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지수 기자

국민의힘 영천시당협, 선거 공보물 미제출 논란

"시민 기만이다"(더불어민주당) "선택사양이다"(국민의힘) 민주당, "비례후보 공보물 없이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자가당착" 국민의힘, "시장 후보도 내지않는 제1공당이 알가알부 할 일 아냐"

국민의힘 영천당협이 오는 6.1지방선거 투표와 관련해 자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을 내지 않아 시민들과 민주당의 비판이 높다.

유권자들이 선출직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 공보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영천시선관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일제히 각 유권자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영천당협은 자당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주학(무직)·배수예(정당인) 2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상임(정당인)씨는 공보물을 내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를 두고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지역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해야 하

는 상황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힘 영천시당협이 유권자들에게 비례대표 후보를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권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반증이며 이렇게 해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역당협 관계자는 "비례대표는 정당지로 선출되는것이 우선이다. 선거법에 비례대표의 공보물은 선택사양으로 되어있어 우리당 지역구 후보들과 혼동이 되지않도록 혐의를 거쳐 비례대표의 공보물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대한민국 제1공당으로 영천시시장 후보도 내지 않은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알가알부 할 일은 아닌줄 안다"고 해명했다.

장지수 기자

<1면에 이어>

- ◆영천시의원 비례대표 2석 모두 국민의힘 차지
- ◆국민의힘 배수예·박주학 당선 확정

특히 2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혈전을 벌인 시의원 비례대표도 2석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당초 선거공보 미제출로 민주당과 일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상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인재영입으로 비례 공천했으나 2석 모두 국민의힘에 빼앗기면서 실패한 인재영입 지적을 받는다. 비례대표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77.71%, 더불어민주당 22.28%다.

이로서 영천지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7회 지선에서 시의원 3석을

차지해 민주당 동토의 땅에서 정치교두보를 마련했으나 이번 지선에서 5명의 후보를 출전시키고도 영천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데다 국민의힘과 여·야가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광풍을 넘지못하고 단 한석도 건지지 못했다.

영천시민 77.71%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출전한 지역 국민의힘 시·도의원이 압승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제7회 지선에서 무소속에 빼앗겼던 영천시시장 탈환에는 실패했다. 영천시민들의 이번 선거 표심은 윤석열 정부 성공과 지역 발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경북도지사-영천시시장-영천시·도의원 등 일직선상의 여당 프리미엄을 지역 발전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표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영천시시장 인물론에서 밀려 결국 무소속에 두 차례 연이어 자치단체장

자리를 내주면서 조심스럽게 이만희 의원의 책임론도 싹틀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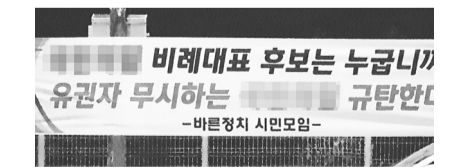
한편,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50.9%, 경북 52.7%, 영천은 56.9%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81.5%로 가장 높았고, 구미시가 42.8%로 가장 낮았다. 또 사전투표율은 전국이 20.62%, 경북이 23.19%, 영천은 25.01%로 나타났다. 경북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52.08%로 군위군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곳은 15.87%를 기록한 구미시가 차지했다.

한편, 청도군은 국민의힘 김하수 후보가 56.12%인 14,878표를 얻어 청도군수 당선자가 됐다. 경북도의원 청도군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선희 후보가 59.6%를 얻어무소속 김수태 후보를 5,031표차로 눌러 도의원에 당선됐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선관위, 특정정당명 불법 현수막 게시 고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전일인 지난달 26일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언론사 기자로 사전투표 전일인 5월 26일 22시 경에 영천시 관내에 특정 정당명을 명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총 17매를 게시한 혐의다. A씨의 요청으로 불법현수막을 내다 건 광고회사는 지역 B광고사로 확인됐다. <사진>

「공직선거법」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전투표 전일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尹대통령, 손실보전금 추경안...“신속 집행” 당부

1업체당 최소 600만원...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락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부터 지급 업무에 즉시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에서 2조6000억 늘어난 6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6월2일부터는 1인경영 다수업체 신청이 시작된다.

추경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600만원~1천만원까지 지급가능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일정	방식	주요 내용	업체 수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개사
6월 1일(수)		출판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목)	확인지급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손실보전금 표1=중소벤처기업부 자료>

게 최대 2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어 기존 정부안 보다 3000억 늘린 26조 6000억원이다.

추경 협상을 통해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기준이 30억 370만명에서 매출액 50억원 이하 371만명으로 중기업까

지로 확대했으며 보전율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4조 2천억원과 대환대출 지원 8조 5천억원까지로 확대됐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4천억원의

현물출자도 확정했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 코로나 방역 지원(1조1000억원) △ 산불 대응(130억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를 이내 지급받는다. 우선 지난달 30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영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1인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다른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정기택 시의원(4선), 진실 밝히겠다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1억5천만원 받고도 1억원만 받았다. 수표로 받고도 통장입금 받았다.
무혐의 밝히려다 오히려 2억5천만원 수뢰 의혹, 갈수록 쟁점화될 전망



정기택 시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으로 "진실은 이제 모두 밝혀졌습니다. 저와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고 그 음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역으로 경고했다.

이날 정 의원은 또 "더 이상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로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며 당부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동조세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참석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역 주간지 A 기자가 전 사업주로부터 허위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자를 받아 지역 언론, 모 정당, 영천희망포럼 정모씨, 고경면 손모씨, 시청 직원들을 찾아가 마치 자신과 최기문 시장님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동분서주 다녔다"면서 "관련자를 민·형사상 고소하는 등 변호사와 함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은 앞서 100억원대 이상 투자된 영천시 청통면 관광휴양형테마파크 '휴먼스타월드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불·편법에 자신을 포함한 사업자, 영천시 공무원 그리고 전·현직 시장 등 6명이 검찰에 고소된 것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대 시민 보고다.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영천시 공무원 그리고 전·현직 시장 등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5

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4일남음)가 임박해 사건을 같이 묶을 경우 전체 사건이 표류할 처지에서 검사측과 협의해 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취하를 해주었다"는 게 고소인과 고소인 변호사측의 증언이다.

또 사업장에 유류 1억 5천만원 상당을 공급해주고 그 대금으로 1억원을 받은 내역도 이날 정 의원이 밝힌 사실과는 달랐다. 주유소는 정 의원의 아들 명이고, 당시 정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 자신이 사업진행을 도와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받아갔다.

정 의원은 1억원을 유류대로 두 차례에 걸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아직도 외상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뇌물이면 누가 통장으로 받겠느냐"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정 의원은 통장이 아닌 수표(5,000만원 2매)를 받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는 "고소인 외 새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A기자에게 밝힌바 있다. 1억원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결국 수뢰 금액은 모두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나

더 쟁점화될 전망이다.

또 정 의원은 "지역 주간지 A기자가 감사원에 고발해 자신이 조사를 받았다"면서 A기자를 고발의 주체로 지목했지만 A기자는 "감사원에 고발한 사실조차도 없으며, 지역 언론, 모 정당, 영천희망포럼 정모씨, 고경면 손모씨, 시청 직원들을 찾아가 마치 자신과 최기문 시장님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동분서주 다닌 사실은 더더욱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이 사업장과 관련한 고소 내용은 ▲사업장(지구단위계획수립시)은 최소 12M이상의 4차선 도로에 연결되어있지 않아 처음부터 불법이다. ▲정 의원이 개입해 사업진행을 도와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설계도 없이 선 시공 후 설계를 하고 있다. ▲경매로 취득한 전답에 농지취득증명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반려했다. ▲사업장이 맹지로 변했는데도 영천시가 도시계획도로(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등 구체적 내용이 고소장에 적시돼 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을 검찰이 1차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해 한 차례 항고했고,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재수사 지시가 있었지만 결

국 이번에 검찰이 또 시간만 2년여 끌면서 고소인 조사한 번 없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현재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현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2020년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고소인이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청통 관광위락시설)그 사건은 광역수사대에 제보돼 (이미)다 조사된 내용이며 또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감사원 및 (영천시)자체감사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2년 후 최 시장(최기문 시장)의 재선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최 시장의 팔다리를 잘라야 하니 그 첫 번째가 자신(정 의원)이다"고 발언해 고소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고소인과 변호사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오는 6월 16일 항고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서 '무혐의가 아닌 진행중인 사건이다'고 밝히 이번 정 의원의 사건은 갈수록 쟁점화될 전망이다. 장지수 기자

농어촌공 영천지사, (公社)경북 최초 무인제초기 도입... 중대재해 예방

예산 절감, 재해안전예방, 농업기반시설 효율적 관리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이관우)가 '무인제초기'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公社는 하절기 제초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와 예산절감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달 23일 관내 대승저수지 제방에서 이번 "무인제초기 안전 교육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무인제초기 도입 시범운영은 경북지역公社 중 영천지사가 처음이다. 1회 제초폭은 70cm, 최대 경사는 45도, 바닥 제초 높이는 4.5~9.5cm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무인조종기로 최대 150m거리에서도 조종이 가능해 안전사고 예방 및 다용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사는 밝혔다.

한편, 기본 운영은 전기배터리(제

초 칼날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이번 무인제초기는 1대당 가격은 4,300만원으로 (公社)경북본부가 2대를 도입해 상주시사와 영천지사 두 곳에 각 배정했다.

또 영천지사는 지난해 전체 94개 관리저수지를 대상으로 제초인력 연인원 350여명에 약4,000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무인제초기 도입이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전사고예방과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영천 제9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 유치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승마대회 공모사업 32개중 7개 유치 성공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전국승마대회 공모 사업(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전국 32개 승마대회중 제9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를 비롯해 7개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7개 유치 성공은 경북이 말산

업 중심으로, 승마대회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을 내실 있게 준비해온 결과로 경북도는 보고있다. 이번에 국비 2억원을 받은 유치 공모사업은 ▷구미시승마장(제16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와 제51회 학생승마선수권) ▷상주국제승

마장(제10회 정기룡장군배와 제3회 경기도승마협회장배 및 제4회 상주시장배) ▷영천운주산승마조련센터(제9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 ▷대가야문화체육장(제6회 대가야기마문화승마대회)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영천경마공원 착공과 연계해 각종 전국승마대회 개최로 도민의 문화 창달·관광·레저 생활 등 여가문화 조성에 청신호가 될 것이며, 말 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리브하우스' 4호 완공 기념식

(주)한중NCS,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정기탁 3년째 이어져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는 지난달 31일, 금호읍 황정리에서

김환식 (주)한중NCS 대표이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리브하우스 4호'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가 지원한 서부동 1호 사업이 시작됐다. 2020년부터는 제2호 사업으로 (주)한중NCS가 직장인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성금을 지정기탁해 올해 4호까지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4호 리브하우스는 한중NCS가 지정기탁금 2,000만원을 후원하고 집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징검다리 봉사단(회장 박대진)과 아름다운 봉사회(회장 윤태목) 회원 30여 명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 참여로 진행됐으며, 화장실 개축, 싱크대 교체, 대문 설치 등 독거 어르신의 노후가옥의 전반적인 수리가 이뤄졌다.

박한우 기자

'영천 별빛촌 목요장터' 6월 2일부터 개장



경북 영천시는 6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9시) 마다 망정동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음악분수대 광장에서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선보이는 '영천 별빛촌 목요장터'를 개장한다. 6월 2일 개장 첫날에는 방문객들에게 에코백 증정(한정)을 할 계획이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농산물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년도 목요장터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가공한 각종 제철 과일, 채소, 가공식품들을 판매해 약 5천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운영주체인 영천시농복합상품화연구회(회장 채승기)는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호응을 얻도록 참여농가 추가모집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한우 기자

경북도, 우수 소상공업체 '행복점포' 발굴 최대 천만원 지원

올해 20개 점포 신청 받는다

경북도는 지난달 25일, 2020년부터 시작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점포' 선정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점포'로 선정되면 업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며, 점포당 최대 천만원 범위 내에서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맞춤형 환경개선과 인증 현판 부착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서

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20개의 행복점포를 선정할 방침이다.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공인으로 새로운 아이템과 경영방식을 적용해 매출이 상승한 점포,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

제조하는 업체 또는 점포 탄생과 운영에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등이다. 행복점포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 만료 시 평가 후 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 관내에는 현재 2020년 1호점인 김천 '대성암분가초밥집'을 포함해 32개와 2021년 영천 '도끼빵야' 등 20개의 이미 선정된 행복점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72개 점포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한우 기자

청통면 돈사 화재 돼지 2천마리 폐사 6억원 피해



지난달 28일 오전 새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A돼지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돈사 3개동이 소실(2개동은 일부 소실)되고, 돼지 2천여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새벽 0시24분께 발생해 소방 인력 40명과 차량 16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4시 52분께 진화됐다면 이같이

밝혔다. 이 불로 A농장 6천270여㎡의 돈사 1개동 전체와 2개동은 일부가 불타고 어미 및 새끼 돼지 2천 마리가 폐사하고, 소방서 추산 6억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영천뽕,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영천경찰서(서장 민문기)는 어르신이 운집하는 장소 어디든 찾아가 지속적 어르신 안전교통문화 정착 및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지역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장날을 맞아 영천공설시장 주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 보행자를 대상으로 형광팔토시, 홍보용 마스크 등을 나눠주고,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무단 횡단 금지 등 안전 수칙도 홍보했다. 경찰은 "어르신들의 경우 걸음걸이가 느릴 수 있다"면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전자 보다 보행자가 우선 시 되는 교통 문화 정착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경북FFK전진대회 25명 수상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교장 정미정)는 지난달 25일 김천생명과학고에서 개최된 경북 FFK(Future Farmers of Korea) 전진대회에서 금상 5개, 은상 8개, 동상 8개를 수상했다. 출전학생 33명 중 25명이 수상하면서 전년도 보다 향상된 성과를 거뒀다. FFK전진대회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 경합의 축제로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에서는 ▶연구과제 ▶창업과제 ▶식품과학이론 ▶골든벨 ▶글로벌리더쉽 분야에 출전해 한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금메달을 수상한 김OO학생은 '매실추출물의 피부개선 효과 비교'라는 연구주제로 참가해 "이번 대회를 통해서 평소 학교에서 배운 실험수업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젝트 실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18명은 9월 27일 경남 김해생명과학고에서 있을 전국 FFK전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박한우 기자



'영천신문' 인터넷판 '영천투데이' 클릭
오늘이 보입니다 www.yctoday.net

박영환<최기문 두 후보간 표차...2.8%p 초박빙 나흘만에 15.1%p 의혹

[선거여론조사 의혹 돋보기 분석]

박 후보 조사분석팀, 여론조사 신뢰도 의혹 제기 조작 가능성 언급

[박 후보측]
 2.8%p 초박빙이 나흘만에 15.1%p로 벌어질 이유·사건 없었다. 유튜브 K-tv, 2.8%p 자사 조사 보다 15.1%p 타 신문 조사 더 뛰어난 이유?
 K-tv 지난달 19, 20일 조사, 실제 보도 지난달 24일 밤 10시 흡 녹장 등록
 k-신문 지난달 24, 25일 조사, 지난달 26일 신속보도, K-tv 도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 신속보도
 최 후보(선거캠프)측, 기다렸다는 듯 k-신문(15.1%p) 조사 SNS 퍼날라
 유튜브 k-tv(서울, M리서치), 유무선 44,639개 대상 503개 응답완료 15시간40분
 K-신문(전남 광주, KIR), 유무선 96,720개 대상 1006개 응답완료 13시간 10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기관 자료 분석 결과 "조작 없었다."...]...그러나



<사진1=국민의힘(기호2번) 박영환 후보와 무소속(기호5번) 최기문 후보>

여론조사 직전에 큰 사건이나 빅(big) 이슈가 없는 한 여론조사는 여론의 흐름이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와 무소속 최기문 후보간 표차가 투표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지난달 24일, 25일 K-신문)에서 급작스럽게 큰 폭으로 벌어져 신뢰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박영환 후보측에 따르면 "일부 언론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식 여론조사 공표 등은 공정한 경쟁과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기획의도 등을 따져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K-tv와 k-신문 두 언론사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지역 인터넷언론 K-tv 의뢰로 '(주)M커뮤니***/M리서치'가 실시한 지난 5월19,20일 이틀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최 후보간 지지도 표차는 2.8%p로 초박빙을 나타냈다. "M리서치"는 전국 여론조사기관 중 신뢰도가 꽤 높은 업체로 2.8%p 오차 초박빙 여론조사는 나름 신뢰도가 있다는 것이 박영환 캠프측 조사 분석팀의 판단이다.

그런데 K-tv 조사결과 후 불과 4일 후인 지난달 24일과 지난달 25일 이틀간 k-신문(경주)의 의뢰로 실시한 **R(K**리서치 **본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간 지지도 표차가 급작스럽게 15.1%p 크게 벌어지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 ※정당지지도 여론 추세
 - 4월 11,12일 조사...국힘(65.7%), 민주당(14.6%)-(매일신문)
 - 5월 14,15일 조사...국힘(64.9%), 민주당(15.3%)-(경상매일)
 - 5월 19,20일 조사...국힘(67.9%), 민주당(15.5%)-(K-tv)
 - 5월 24,25일 조사...국힘(66.6%), 민주당(15.9%)-(k-신문)
 - ※후보 지지도 여론 추세
 - 4월 11,12일 조사...박영환(19.6%), 최기문(41.9%) 표차 22.3%p, (매일신문)
 - 5월 14,15일 조사...박영환(38.0%), 최기문(47.5%) 표차 9.5%p, (경상매일)
 - 5월 19,20일 조사...박영환(41.0%), 최기문(43.8%) 표차 2.8%p (K-tv)
 - 5월 24,25일 조사...박영환(36.0%), 최기문(51.1%) 표차 15.1%p (k-신문)
- ★<본 기사에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결과는 각 언론사별 여론조사일자를 참고해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선가능성 최기문 49.9% · 박영환 32.3% · 이정호 5.1%
지지도 최기문 43.8% · 박영환 41.0% · 이정호 4.1% 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차기 영천시장 선택기준으로 행정능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기문 후보는 당선가능성에 박영환 후보를 오차범위 밖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지만 지지도에서는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지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TV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나는 후보선택기준에 대한 물음에 행정능력(37.2%)을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공헌도 17.7%, 소속정당 14.4%, 공약 정책 14.0%, 인물평판 8.1%, 정치적 역량 2.3%, 기타 1.3%, 잘 모름/무응답 4.9%이었다.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무소속 최기문(43.8%) 후보가 국민의힘 박영환(41.0%)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2.8%p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정호 4.1% 지지후보 없음 5.4%잘 모름 5.7%).

<사진2=박영환-최기문 두 후보간 초박빙 표차를 알 수 있는 5월 24일 밤 10시에 발표된 k-tv 의뢰 여론조사, (k-tv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이 화면에는 박영환 후보의 기호가 1번으로 되어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간 직전 큰 사건이나 이슈가 없을 경우 여론 흐름의 추세에 따른 결과가 일반적이다. 최근 위 4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표차는 각각 51.1%p, 49.6%p, 52.7%p, 50.7%p로 주로 50%p 대에서 여론의 추세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

반면 두 후보간 지지도 표차는 처음 4월 12일 22.3%p에서 ⇒9.5%p(5/15일)⇒2.8%p(5/20일)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초박빙으로 좁혀져온 것이 여론의 추세다. 하지만 조사기간 직전 박영환 후보에게는 이준석 당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의 지원 유세와 최기문 후보와의 토론방송에서도 박 후보가 더 유리했다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k-신문의 갑작스런 조사가 여론 추세의 반대 방향인 15.1%p나 크게 벌어졌다.고 박 후보측은 분석했다.

이날 박 후보측에 따르면 의혹의 근거는 이렇다. ①K-tv는 자사 의뢰 두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보도일시 지정 시각보다 훨씬 더 늦은 이날 밤 10시에 보도하면서도 여론조사의 핵심인 2.8%p 초박빙 지지도 결과는 후순위에 넣고, "지지도와 관련없이 주변 사람들이 두 후보간 누가 당선될것으로 생각하던가요?"라는 제3자적 설문 결과를 더 앞쪽에 배치해 의도적으로 지지도 표차 2.8%p의 시인성을 낮추었다는 것. 즉, 최 후보의 당선가능성(49.9%)을 먼저 배치해 2.8%의 초박빙 지지도가 묻히도록 배치 했다는 것이다.

영천시장 지지도, 최기문 51.1% 박영환 36%로 격차 15.1%p

당선가능성 최기문 53.9% 박영환 34.7%, 격차 17.6%p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가 과반이 넘는 51.1%의 지지율로 박영환 후보(36.0%)를 15.1%p 차이로 크게 앞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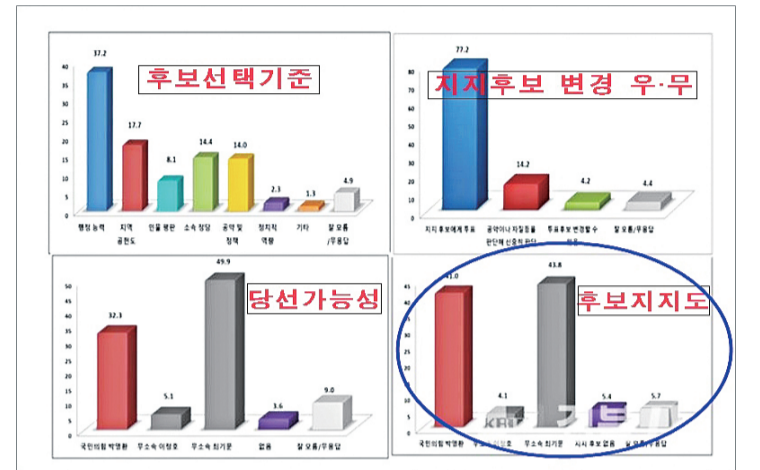
당선가능성은 최기문(53.9%) 후보와 박영환(34.7%) 후보의 격차가 17.6%p로 집계돼 지지도 대비 당선가능성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국이다.

<사진3=26일 발표된 k-신문 의뢰 여론조사를 발표 하듯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k-tv (k-tv 인터넷 홈 화면 캡처).>

두 번째는 ②K-tv와 k-신문 여론조사 기간은 불과 나흘이다. 그 사이 지난달 22일 이준석 당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지원유세 및 지난달 24일 최 후보와의 방송토론 내용이 박 후보가 훨씬 더 양호했다는게 박 후보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K-tv보다 더 늦게 실시한 k-신문 여론조사(지난달 24일, 25일)는 여론 추세에 따라 자신(박 후보)과 최 후보와의 지지도 격차는 더 좁혀지거나 이미 역전되었을 것인데도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온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밀 분석해 유권자 선택의 침해행위가 있다면 선관위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③K-tv와 k-신문 의뢰 여론조사가 최기문 후보, K-tv, k-신문이 서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2.8%p 초박빙 오차의 K-tv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조사완료일 나흘 후인 지난달 24일 밤 10시로 미루고, 같은 날 k-신문이 추가 여론조사를 잇따라 실시했으며, k-신문 조사 완료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즉각 보도했는가 하면, 동시에 K-tv도 지난달 27일 k-신문에 뒤이어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의도적으로 최 후보에게 불리한 2.8%p 초박빙 자료를 감추고 15.1%p 큰 표차만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사진4=k-tv의뢰로 박영환 후보와 최기문 후보간 2.8%p 초박빙 지지도를 가장 후미(왼내)에 배치한 그래프 도표(k-tv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네번째는 ④이같은 15.1%p 후속 여론을 최기문 후보(선거캠프 포함)는 k-신문 여론조사가 지난달 26일 보도되자마자 SNS 등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전파 시키는 등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여론전을 펼친것도 이같은(③)의혹을 날게하는 동시에 이는 또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키는 것이라며 박 후보측은 주장했다.

다섯번째 ⑤여론조사기관 조사방식도 문제삼았다. K-tv의뢰 여론조사기관(서울)은 국내 상위권 신뢰도 업체로 조사방법에 8만개의 유선전화(RDD) 중 랜덤방식으로 피조사자 34,139개와 무선 가상번호 피조사자 10,500개 등 전체 44,639개를 대상으로 503명의 완료응답자를 확보하는데 15시간 50분이걸렸다.

반면 k-신문 의뢰 여론조사기관(전남 광주)은 같은 8만개의 유선전화(RDD) 중 K-tv보다 44,752개 더 많은 78,891개와 무선 가상번호 피조사자도 K-tv보다 7,329개가 많은 17,829개 등 전체 96,720개를 대상으로 완료응답자도 K-tv 보다 두 배가 많은 1,006개의 완료응답자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13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K-tv의뢰 조사보다 약 2.5배 이상의 회선 사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섯번째로 ⑥ k-신문사의 최 후보 지지성향도 문제삼았다. 최 후보는 취임 2개월 20일만인 지난 2018년 9월20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으로부터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행정부문)을 수상했다. k-신문(대표 박**)은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후원사다. 또 k-신문은 최 후보를 홍보하면서 이만희 국회의원을 폄하하는 기사를 보도했다가 지역 한 주간지가 k-신문사를 대상으로 역으로 취재하자 해당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k-신문(대표 박**)은 지난 2021년부터 총 6회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절반인 3회가 최기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발표했다. 경주 소재 언론사가 경북 23개 시·군 중 유독 최기문 후보를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난달 29일 박 후보 측이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자 정당정치를 앞세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영전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다"면서 "일부 세력들이 근거 없는 네티티브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해도 대에는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진5=박영환 후보측의 여론조사 의혹 제기 근거없는 네티티브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한다는 최 후보 측의 반박(30일 매일신문 인터넷 화면 캡처)>

한편, 이번 k-신문사 여론조사 신뢰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한 본지 질문에 "K-tv 및 k-신문 의뢰 두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작 의혹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K-tv 및 k-신문 의뢰 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조사시간 편차 의혹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는 두 조사기관의 회선사용에 대해서는 한 곳만 확인해 비교할 수 없었던 반면, 회선 사용 정밀 근거자료는 없으며 다만 해당 조사기관의 구두 답변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와는 별도로 중앙선관위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 이철우와 국민의 힘을 믿고 압도적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을 선택하고, 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9 대선에서 윤석열을 선택하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철우를 선택해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신 표심을 잊지 않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안전경북 · 건강경북 · 행복경북' 건설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한 표, 한

표에 저의 혼을 담아 희망이 샘솟는 경북을 짓겠습니다.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세계로 나가는 하늘 길을 열겠습니다. 공항중심 경제권을 형성해 글로벌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일만항 건설로 세계로 나가는 바닷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복원해 탈(奪) 탈원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농촌에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주도형 정책을 확대하고, 포항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함께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으로 지역 내 연구소와 벤처기업 창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산단을 대개조하고, 홀로그래프 기술개발,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산업융합포, 스마트그린물류 특구 지정에 이어 동해안권은 신약, 에너지분야 산업을 발전시켜 한국의 실

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효율적 대응, 체류형 명품 관광도시 건설, 농업의 6차 산업화, 철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대한민국 교통 낙원을 건설해 도민 여러분의 행복 체감지수를 한껏 높여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산·학·연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전문가와 기업을 연계한 경북도,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의 백신바이오, 영주의 첨단 베어링, 포항의 배터리 특구, 경주 혁신원 자력, 구미 5G 등 선제적 균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이제 저, 이철우는 지난 4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4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선의 힘있는 중진 도지사로서 경북도민과 경북,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이상을 스케치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 볼 작정입니다. 또다시 제게 주어진 4년 에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에서는 여야를 떠나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의 갈등과 반목은 선거일을 계기로 끝내야 합니다. 누구를 지지했건 경북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반목과 갈등에 쏟아 부을 에너지를 국민 화합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선거 과정의 갈등과 반목은 훌훌 털어버리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는데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풍경초(疾風勁草), 즉, '스스로가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풀'이라는 뜻입니다. 저, 이철우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질풍경초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이철우가 있어 투표장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희망찬 경북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도지사 당선인 이철우 배상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 임종

식을 다시 경북교육감으로 선택해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 추진과 온전한 교육회복을 바라는 경북도민의 승리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바라는 300만 도민의 뜻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4차 산업시대로 불리는 미래사회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삶의 힘

을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여러분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한 표, 한 표에 담긴 뜻과 경북교육을 잘 이끌어달라는 요구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함께 고생하신 마숙자, 임준희 후보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경북교육을 생각하며 고민하신 두 후보님의 공약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정책 추진과 온전한 교육회복 이루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드린 6가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인성교육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키우겠습니다.

△본격적인 미래교육 대비 수업혁신으로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난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확대로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서로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소통 및 학교지원 강화로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작은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헤쳐나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4년 전 저는 경북교육을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북교육을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만 5천여 교육가족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선 소감을 말할 수 있기까지 선거 기간 동안 발 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 정책 추진, 온전한 교육회복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인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자



영천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애써주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지지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신 박영환, 이정호 후보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뻐해야 할 순간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과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앞둔 들녘은 타들어 가고,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 할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은, 선거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영천시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업무에 복귀해서 시급한 현안들부터 챙기고, 영천의 미래 신성장을 이끌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선거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저와 함께 위대한 영천건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장 당선자 최기문

경상북도의원 영천시 제1선거구 이춘우 도의원 당선자



이춘우 도의원은 영천시민 한분 한분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무투표당선이란 과분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론 더 큰 책임감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가슴깊이 새기며 변함없이 오직 영천의 대표일꾼이 되겠습니다.

영천시를 위해 영천시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방마늘 산업특구 선정으로 생산과 단순가공에 더해 체험·관광, 연구·개발 등과 융복합으로 6차 산업 육성하여 스마트농업 시설 확대와 신품종 지속개발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노력하고 영천시에 마늘전용 도매시장을 만들어 전국적 가격과 수매를 결정하고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마공원과 지하철 신역세권 개발계획 및 금호대청간 지방도 3단계 추진 및 완공 할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확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활안정 기본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문화 학생의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겠습니다.

영천시의원 이춘우 도의원 당선인

경상북도의원 영천시 제2선거구 윤승오 도의원 당선자



먼저 영천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한분 한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선거기간동안 약속드린 공약들을 임기 내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우리 영천시가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재선도의원 윤승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 '준비된 도의원'이란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시민여러분의 편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원 영천시 제2선거구 윤승오 당선인

[영천시의원 가-선거구] 김선태 시의원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김선태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서부동, 남부동, 완산동, 북안면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듣고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저 김선태가 먼저 가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부지런한 시의원이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힘 있는 일꾼'이 되어 북안면 친환경 농업 대학, 남부동 환경시설 집단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서부동 공공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 조기착공,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준공 등의 공약을 행동으로 이행하며 열정과 신념, 원칙과 소신을 다해 여러분께 드린 김선태의 공약, 꼭 지키겠습니다. 예산심사와 행정감사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오직 주민들의 삶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이며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선태 당선인

[영천시의회 나-선거구] 김상호 시의원 당선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영천시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금호읍, 대장면, 청통면, 화산면, 신녕면 여러분의 일꾼 김상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입후보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업무에 지장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영천시정의 운영방침과 방향이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영천시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시민의 만족도에 깊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는 농부다운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천시민입니다. 좋은 일도 함께 웃고 힘들 때도 함께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가족입니다. 정성을 다해 주민을 섬기는 진정한 일꾼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의원 김상호 당선인

[영천시의회 나-선거구] 김종욱 시의원 당선자



존경하는 신녕 화산 청통 금호 대창 유권자 여러분!

우선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인사 올립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제가 늘 강조해 왔던 우리 지역 발전 구상 실현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34년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오직 우리 지역과 영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지역의 굼직한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독려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을 살피고 여러분과 약속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의원 김종욱 당선인

[영천시의회 다-선거구] 이영기 시의원 당선자



존경하는 동부·중앙동 주민 여러분! 선거기간 내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동부·중앙동은 영천시의 한 가운데서 인구는 물론 시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살아숨쉬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경험한 의정 경험으로 앞으로의 4년은 주민들의 권익과 편안한 삶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쏟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만날 준비가 된 시의원,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해결사로 인정받는 시의원, 시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 큰 영천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영천시의원 이영기 당선인

[영천시의회 다-선거구] 하기태 시의원 당선자



부족한 저 하기태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동부·중앙동 주민여러분께 가장 먼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4년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않고 약속대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동부동,중앙동을 만드는 시의원 다운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에 가장 가까이서 귀를 열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진정하게 주민을 섬기는 참 시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릴것을 다시한번 더 약속 드립니다.

대외적으로는 영천의 중심인 동부·중앙동의 자랑스러운 시의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늘 당당한 진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의원 하기태 당선인

[영천시의회 라-선거구] 권기한 시의원 당선자



존경하는 고경,임고,자양,화남,화북면 지역민 여러분!!

영천시의회선거 라-선거구 당선인 권기한 인사 올립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진심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 지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거 시작 전부터 초심 진심 소통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면민 여러분의 기대와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저를 키워주신 고향에 헌신하며 살아가라는 제2의 인생을 얻은 만큼 누구보다 강한 열정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분열과 대립이 극심한 우리지역을 위해 절대 편견 하지 않고 오직 지역을 위한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면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후회스럽지 않도록 제실속 차리지 않고 우리 지역민들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초심 진심 소통의 마음처럼 저 권기한 확실한 지역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의원 권기한 당선인

[영천시의회 라-선거구] 이갑균 시의원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천시의회의원 라-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갑균 인사드립니다.

제가 잘 나서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4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증명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8대 후반기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아 다양하고 풍부한 의정경험과 지역사회에서의 봉사를 바탕으로 우리영천시와 지역구주민의 미래를 위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 가슴 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면서 여러분의 일꾼이라는 신념으로 항상 주민곁에서 귀기울이고, 발로 뛰는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가 아깝지않게 임고,자양,고경,화북,화남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4년 더 열심히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의원 이갑균 당선인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배수에 시의원 당선자



영천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영천시민님들의 따뜻한 지지로 금번 6.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영천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배수에 인사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일 하라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영천시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과 소통하며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과,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에 앞장서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저의 가진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희망영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배수에 당선인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박주학 시의원 당선자



존경하는 영천시민님들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영천 발전과 시민분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영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확대 등을 의정활동의 중심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의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겠습니다.

또 지방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지원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시정방향을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시정으로 확실히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을 항상 잊지 않고 민심 앞에 겸손하며 시민을 섬기는 참된 시의원이 되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삶터와 일터에 늘 만날 수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것을 엄숙히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의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박주학 당선인

청도군수 당선자	청도군 도의원 당선자	청도군의원 당선자

<화보>



강변공원 분수대 가동... 5월25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일 세차례 오후 7시부터 영천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영천강변공원 분수대를 가동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가동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7시부터 매 30분 간격으로 하루 3차례다. 화려한 조명과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대중가요가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천시, 북안면 돌풍 피해 포도농가 긴급 복구

영천시는 지난달 27일 북안면 유하리 돌풍 피해농가 긴급복구 및 일손돕기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북안면 유하리 173번지에 순간적인 돌풍이 발생해 포도 비가림 시설 약 300평이 파손 됐다.



또 이로인해 포도나무가 쓰러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는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긴급 복구에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12명, 북안면 직원 5명 등 17명이 참여해 포도 비가림 시설 300평 복구 지원과 100여평의 포도 결순치기로 농가일손을 도왔다.

시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는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업시설물 기준규격을 준수해 주시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했다.

박한우 기자

경북교육청, 학교조리원(영천) 17명 특수교육실무사 1명 등 18명 공개 채용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해 조리원 362명과 특수교육실무사 50명, 총 412명의 교육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중 영천은 조리원 17명과 특수교육실무사 1명 등 모두 18명이다.

교육공무직원은 퇴직, 정원변경 등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 공고는 5월 30일 본청과 영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원서접수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등기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필기시험은 7월 9일 인·적성 검사(인성검사 +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해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 2차 면접시험은 교육지원청별로 7월 27일 실시하며, 오는 8월 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박한우 기자



영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영천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폐수,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상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도점검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구미시와 함께 2인 3개 조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별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유지·관리 현황 파악 △운영 기록 △자가측정 이행 실태 △시설 변경 신고 등 관련 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했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현장 행

정지도 실시와 고의적 또는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사용중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 문제 등의 발생 사업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기술 지원 실시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업장 관리 소홀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 유도 및 사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장지수 기자

청통초, 장애·비장애 학생 어우러져 개성 맘껏 펼쳐

청통초등학교(교장 임진성)가 지난달 말 전교생들과 영천 갤러리 큐브 화가 2명이 함께 교내 오브제 벽화그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탄소중립의 소중함과 장애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청통초는

2022 교육부 주관 탄소중립교육 시범학교 프로그램 및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교내 노후화 된 벽면 개선책에 대해 학생이 직접 학교 꾸미기에 솔선수범하도록 했다.



‘의병의 날’ 영천시 첫 기념행사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천시강변공원 주무대

임진왜란 창정의용군과 구한말 산남의진 등 굵직한 의병 역사를 가진 영천이 ‘의병, 그 이름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영천시강변공원 주무대 일원에서 개최한다.

보훈의 달 6월의 문을 여는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매년 공모를 통해 개최지가 선정된 지자체가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영천에는 국난극복의 DNA가 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임진왜란부터 구한말, 나아가 6.25전쟁 때도 이 고장에는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꽂혔다.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영천의병의 활약을 이

번 제12회 의병의 날 행사를 통해 한눈에 보게될 예정이다.

행사기간중 <11일에는 ‘영천의 병’ 주제기념관과 체험부스가 운영될 계획이다. 체험부스에는 신기전·거북선 만들기, 의병시표 만들기, 의병의상 체험, 국궁체험, 주먹밥 시식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된다.

12일에는 최태성 역사강사와 함께하는 역사 토크 콘서트가 1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초대 가수 공연이 계속된다.

13일 기념식 당일까지도 주제기념관과 체험부스는 계속 운영되고, 당일 14시 기념식에는 영천의병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주제공연과 가수 공연이 계획되어 있다. 박한우 기자

출판기념회, '노계 박인로의 삶과 문학세계' (노계서③)

저자 : 경북대학교
김석배 문학박사(금오공대 교수)

영천에서 포은 정몽주, 최무선 장군과 함께 3선현의 한분으로 추앙받고 있는 노계 박인로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가 경북대학교 김석배 문학박사(금오공대 교수)에 의해 또 한번 세상 밖으로 나왔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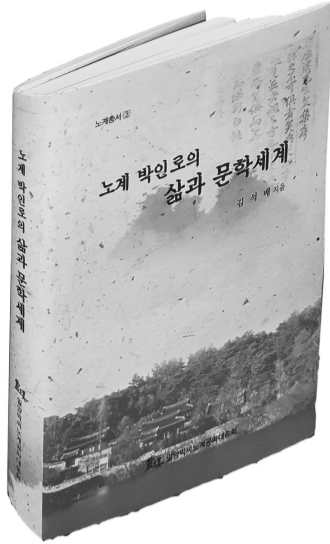
노계 박인로(1561~1642)는 송강정철(1536~1593), 고산윤선도(1586~1671)와 함께 우리나라 시가(詩歌)문학의 3대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조 가사문학(歌辭文學)으로 우뚝 선 공의 휘는 인로(仁老) 자는 덕옹(德翁) 호는 무하옹(無何翁)이며 노년에는 노계(蘆溪)라 하였다. 대기만성형 노계 선생은 당대 송강이나 고산처럼 작가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다 1930년 노산 이

은상 선생의 『조선일보』연재로 세상에 참 빛이 알려지게 된다.

500쪽 짜리 정가 50,000원의 이 책은 밀양박씨 노계공파대중회 도움으로 도계문화사에서 펴내 지난달 10일 초판 인쇄를 마치고 지난달 27일 오후 1시 영천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또 한번 세상의 빛을 보게된 것.

송강 정철의 시가가 정치 성향을 따른다면 노계의 시가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바탕이다. 노계 선생은 삶의 구도자(求道者)로 생활인의 정서를 노래하며, 사대부문학에서 평민문학으로 인정 받는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도 독학하여 어린 13세에 <대승음(戴勝吟)>이란 시를 지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선생의 덕목은 성(誠)·경(敬)·충(忠)·효(孝)다.



저자 김석배 교수는 중학교 시절 선생의 시가 '반중 조흥시가'에 감탄했고, 이어 2004년 처음 세상을 나온 『경오본 노계가집』에 또 한 번 탄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노계 선생과 인

연(발자취 추적)을 맺게 되었다며 이번 발간의 의의를 전했다.

김 교수는 노계 선생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다니며 선생의 긴 여정과 나눈 대화를 이번 『노계 박인로의 삶과 문학세계』에 고스란히 담아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 것을 추가해 선생의 오묘한 작품 세계를 세상에 재조명한다.

또 작가는 『경오본 노계가집』에 <상사곡>과 <권주가>라는 새 작품을 발견해 덧붙여 독자들에게 노계 선생의 문학성 확장을 새로 선보인다. 소위 <조흥시가>라는 시조 4수의 창작 경위도 분명하게 밝혀 또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잃어버린 『노계선생문집』의 책판을 되찾는 일에 이번 발간 의의를 엮보게 했다.

저자는 노계 선생의 생애와 문학, 노계가사문학의 결과 속, 노계 시조

문학의 세계를 포함해 노계시가 문학의 외연과 노계선생 문집의 간행과 노계 기억하기까지 모두 5부 16장으로 나누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노계선생의 진수를 이해 하도록 했다.

또 부록에는 노계선생의 비문과 노계선생의 연보를 사진과 표로 엮어 참고 문헌과 함께 쉽게 노계선생과 접하도록 하여, 노계 선생에 대한 지식을 넓히길 원하는 독자들이면 반드시 한 번쯤 이번 서책 『노계 박인로의 삶과 문학세계』를 욕심내 볼 만하다.

한편, 선주문화연구소장과 판소리 학회장을 역임한 작가 김석배 교수의 저서로는 「판소리 명창 박록주」, 「고전서사문학의 넓이와 깊이」, 「한국고전의 세계와 지역문화」 외 다수가 있다. <편집부>

'2022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협약 체결

영천신협-완산지역아동센터
영천신협(이사장 김재홍)과 영천시 완산지역아동센터(센터장 정

향순)가 지난달 18일 '2022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천신협의 '어부바 멘토링'은 영

천신협의 임직원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눈높이 경제교육'을 직접 멘토한다. 어린 학생들이 돈의 가치, 바른 소비 이해 등 체계적인 경제습관을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국 신협과 인근 지역 아동센터의 결연으로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나눔 사업으로 영천신협은 2019년부터 완산지역아동센터에 매년 300만원의 사업비를 후원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시행

6월 1일부터, 폐기물 감축 목적

영천시가 식품품 비대면 구매 확산 급증으로 아이스팩 폐기량 감축을 위해 6월 1일부터 영천지역 자활센터와 협력해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수거함에 배출한 아이스팩을 영천지역자활센터로 운반해 세척·소독 과정을 거쳐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식품 가공업체 등), 주민 등이 재사용 하도록 영천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오염 및 훼손되지



않은 젤 타입 아이스팩이며 아이스팩 수거함은 시청, 그린환경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지역자활센터, 한신더휴영천퍼스트(공동주택 1곳 시범설치운영포함) 등 총 9개소에 설치된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6위...역대 최고 성적 기록

15개 종목 112명 참가
금 14개, 은 16개, 동 17개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구미 등 경북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경북도교육청(경상북도)은 금 14개, 은 16개, 동 17개로 총 47개(시범경기 종목 제외)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전체 6위)

을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육상에서 16개(금5, 은6, 동5), 역도에서 11개(금5, 은3, 동3)의 메달을 대거 획득해 강세를 나타냈다.

포항명도교 최예린 학생이 역도에서 금메달 3개, 같은 학교 김지우 학생이 역도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안동 영명학교 윤부현 학생이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각각 다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시도에서 총 3,09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경상북도 선수단은 15개 종목에 11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모두가 합심해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며, 향후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한우 기자

북안면에 실내화 1만 켤레 기증 "지역 복지시설에 사용해 달라"



㈜월드뱅크(대표 허조)가 2일 영천시 북안면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위해 실내화 1만 켤레(3,8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시가 2일 밝혔다.

허 대표는 이 실내화를 지역 복지시설 및 실내화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뱅크는 작년에도 북안면에 KF94 방역 마스크 1만 장을 기탁한바 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 첫 입국

농촌 노동력 확보

영천시는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이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경 상반기 4개 농가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명을 지원하기로 계획 했으며 하반기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다.

또, 국내 머물고 있는 방문동거, 동반 등록 비자 외국인이 체류기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격 외

활동허가를 요청하는 방침을 세웠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5개월) 합법적 고용되며 복숭아, 마늘 등 영농작업 관련 교육을 받고 지역 내 4농가에 배정되어 영농철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추후 순차적으로 2명이 더 입국 예정이고 5월 13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한 농가 14호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19명을 대상으로 8월 전·후 입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동정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



이만희 의원은 2일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웹발송을 통해 이번 선거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여당으로 영천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 도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지방선거 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초기에 화재를 압도할 수 있는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를 보강한다. 이 지사는 "최근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특수대응단 신설 및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업무 복귀...미래성장 사업 추진 밝혀



최기문 영천시장은 6.1지방선거일이 끝난 2일 업무에 복귀했다. 최 시장은 2일 웹발신을 통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해 시급한 현안들부터 챙기고, 영천의 미래 성장을 이끌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선거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2022 메이커한마당' 개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3일부터 4일까지 창의적 프로젝트 고안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2022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임 교육감은 행사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제60회 경북도민체전 궁도 영천시대표 7명 선발

올해 시부 3위 입상 목표
300만 도민 대통합의 장
7월15~18일 4일간 포항시,
궁도는 16, 17(양일간)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는 지난달 30일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궁도 영천시대표 선수 7명의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도민체전은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17개 종목 1만1000여명의 선수가 참석해 오는 7월15~18일 4일간 포항에서 열린다. 궁도대회는 이 기간 중 16일과 17일 (토, 일)양일간 포항시 권무정(북구 흥해읍 신흥로 861번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포항에서 도민체전이 정상 개최되는 이번 체전을 위해 포항시는 국·도비 80억 원 등 총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해 '환동해 포항의 꿈, 경북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300만 도민이 하나되는 대통합의 장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체전에서 영천시는 시부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있다. 지난 2019년 대회



제60회 경북도민체전 궁도 영천시대표선수 엔트리 7명 중 6명(왼쪽부터 최정모(시민궁도회), 조복원(영무정), 배동준(금무정), 조원희(영무정), 손승일(영무정), 박덕재(시민궁도회))

에서 상위권인 시부 3위를 했다. 다음 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시부 6위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영천시궁도협회(회장 장지수)는 지난 23일까지 1차 21명을 선발해 28일과 29일 양일간 시민궁도장과 금호 금무정 두 곳에서 2차 선발전으로 최종 7명(각궁 4명, 개량궁 3명)의 영천시 대표선수를 선발해 다시

3위를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7명=손승일·조원희(영무정), 박덕재(시민궁도회), 김영환(금무정), 조복원(영무정), 최정모(시민궁도회), 배동준(금무정))

시체육회 박봉규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종 체육 활동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궁도는 영천시의 효자종목인 만큼 이번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금호중(배구부), 제51회 전국소년체전 준우승

영천교육청, 40명 출전
금 3, 은 4, 동메달 9개 등 쾌거

지난달 28~31일 4일간 경북 구미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호중 배구부(감독 노수진)가 결승전에서 전북대표(남성중)에 아깝게 1대2로 패했지만 준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

2일 학교측과 노수진 배구감독에 따르면 금호중은 이번 대회에서 8강에서 경남대표 하동중을, 4강에서 경기대표 연현중을 각각 2대1로 승리해 마지막날 결승전에서 이같이 패해 은메달(준우승)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금호중 배구부는 1~3학년 20여명으로 구성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노수진 감독 아래 이대회 선생님과 이준호 코치 등이 지도해 올해 제54회 대통령배 우승, 태백산배 준우승 등 전국대회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지역 40명의 학생들이 출전해 육상 외 6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원영 교육장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영천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의 노력과 지도자의 열정이 만들어 낸 결과로 그동안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학교장, 지도교사, 코치, 학부모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김상호 시의원 당선 축하합니다

주민들의 고민과 농업을 대변하고 항상
주민과 함께 어깨동무하는 진정한
참 의원이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김상호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호읍 작은 친구 일동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다가구주택 세입자 임차권보호 우선순위
임차권은 등기보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 우선
담보권자나 후순위권자보다 우선적 변제 가능

문 저는 2021년 2월 1일 甲 소유의 다가구주택 101호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백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입주해서 살면서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난 2월 5일경 비어 있던 옆집 102호에 다른 세입자 乙이 보증금 5천만원 전액을 주고 들어왔고, 그 뒤에 제가 보증금 잔액을 임대인 甲에게 지급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에 보증금 전액을 주고 들어온 102호 세입자 乙보다 후순위로 밀리는지요?

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 의하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놓지 않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담보권자에 대해서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보

장받을 수 있고(법 제8조),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그 전액에 대하여 그 후의 담보권자나 후순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법 제3조의2 제2항).

문제는 귀하의 사례처럼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최우선변제권 요건) 또는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요건) 외에 보증금의 전액 지급도 그 요건이 되는지 여부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귀하의 사례처럼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들어와서 산 후 나중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증금의 전액 지급 문제는 대항력의 문제나 최우선변제권 또는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있어서 변수가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이 문제나 최우선변제권 또는 우선변제권의 문제는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내지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만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7.9.6. 2017다 212194).

따라서 귀하께서도, 계약에 따른 것이든 임대인의 양해에 의한 것이든,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들어와 살다가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인도시점과 전입신고(주민등록) 시점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와 그 순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보다 늦게 들어온 102호 세입자 乙보다는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연금저축, 여유 있을때 가입하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 금액따라 세율적용 달라

연금저축은 단순히 절세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세금혜택이 적용되는지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50세 이상의 종합소득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1억2천원 이하인 경우 불입한도를 600만원 및 퇴직연금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사설]

새빨간 거짓말의 진짜 범인은?

뻘뻘함은 주사파나 종북 또는 북한 김정은에서나 볼 법한 천연덕스러움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두 사람. 바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자치단체장이다.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만희 국회의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사람 말고는 안중에도 없는것 아닐까? 누가 더 거짓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법원의 저울로 달아봐야 알수 있을것 같다.

두 사람은 이번 6.1지방선거를 두고 보이지 않는 고밀도 거짓 신경전을 벌였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 화두다.

시민들은 반드시 범인을 가려야 한다. 그동안 이 '새빨간 거짓말'이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으며, 니편내편으로 갈라치기해 화합을 저해해 왔다. 시민 불화합의 원인을 시민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두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입으로 밥을 지으면 조선이 다 먹고도 남는다 했다. 뻘뻘한 거짓말에도 얼굴색 하나 변함 없이 정말 천연덕스럽다고나 해야할지, 그래 놓고 시민들에게 무슨 큰절은 그렇게나 남발하는지 두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의심된다. 과연 그 큰 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똑같은 경찰출신이라는 아닐텐데 말이다.

시민들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최 시장의 첫 당선부터 국회의원 과 시장의 원팀을 희망했다. 그래서인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원팀이 화두였다.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원팀의 힘은 대단하다. 그렇지 않으면 늘 뼈저터 거리고 서로 상대방 지적질이 난무한다. 관한 쓸데없는 행동에 시간만 낭비할 수도있다.

지난 5월 20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6.1지방선거 당 후보자 출정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사무실 주인은 『"제가 최 시장 국민의힘(입당)못하게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한껏 목소리를 올렸다. 『최 시장 임기 4년 최고 업적 무엇?... "버스승강장 영등이 따듯?"』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체온도 올라갔다.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쟁쟁스럽다. 이같은 치적이 임기 4년 최대의 업적이라며 선거용으로 쓴다는 것이, 거기에 더해 본지 기사를 인용해 『6.25 희생 학도병상 건립 허가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무소속 시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대한민국 제1당(민주당) 시장후보 안내면 (민주당)그들은 무소속(최 시장)에 투표하겠다"는 언론보도가 그대로 사실화 되어간다』며 급기야 『대구지하철 영천(하양)연장을 내가 했다는 최기문 후보, 뻘뻘한 극치, 민주당 속 빼닮은 자화자찬, 내로남불형』이라며 한마디로 뭐? 이렇게 있냐는 투였다.

최 시장 입당 관련 '새빨간 거짓말'

지난 5월25일 박영환 후보와 최기문 후보간 MBC TV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이 통명스럽기까지 하면서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토론회에서 최 후보는 『(국민의힘)당의 입당은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면서 "이만희 의원이 지난 대선 전에 (입당)협조요청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같은 새빨간 거짓말의 주인공일까? 독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냥 귀속이나 후미며 털털 털털은 아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새빨간 거짓말'의 진짜 범인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을 고발이라도 하면 법정에서는 어떤 해법을 내 놓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 시장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대로 원팀도 필요하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선 후 여론을 들어 (국민의힘 입당)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보수 쪽 표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진짜 들어가고 싶은 시그널인지 그것도 아니면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다.

이말에 상대 리더는 『누구 마음대로』라며 장난치지 말라는 뉘앙스의 답변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속된 언어로 니 풀리는 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게 정당이라는 코웃음이기도했다.

혹자는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또 시의회 정원 12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이나 당선됐으니 무소속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며 은근히 최 시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부추키기도 했다.

지역의 두 거대 리더들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면에서도 오직 두 사람의 개인적 감정만 바라보고 가는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 소리가 유독 자신들에게만 들리지 않는이유는 무엇일까? 독재일까? 무식일까?

어차피 공개 장소에서 그것도 출정식과 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새빨간 거짓말' 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진범을 잡고 싶다. 그래야 시민 갈등과 니편내편의 문제가 해결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 계속 될까요. '새빨간 거짓말'의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국민의힘)

영천시장



최기문
(무소속)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 도의원

영천시 제1선거구



이춘우
(국민의힘)

영천시 제2선거구



윤승오
(국민의힘)

영천시시의원 가-선거구



우애자
(국민의힘)



김선태
(국민의힘)

영천시시의원 나-선거구



김상호
(국민의힘)



김종욱
(국민의힘)



이영우
(무소속)

영천시시의원 다-선거구



하기태
(국민의힘)



이영기
(국민의힘)



김용문
(무소속)

영천시시의원 라-선거구



권기한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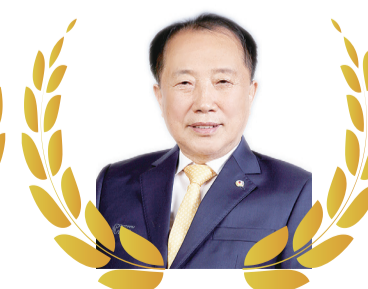


이갑균
(국민의힘)

영천시시의원 비례대표



배수예
(국민의힘)



박주학
(국민의힘)

영천신문 애독자 일동